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후 1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개학을 겸한 연합속회가 이번 주 금요일(13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12일 오후6시 이태원교회에서 열립니다.

테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테러 없는 평화 세상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사 40:21-31 / 시 147:1-11
고전 9:16-23 / 막 1:29-39

오늘 식당 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최미자 유상진 황현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송형운 김종술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남도에는 벌써 봄이 찾아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봄이 되어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이 사회의 지도층은 이윤을 사유화할 뿐 위험요소를 줄여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비윤리적인 사회, 욕망에 들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구명자	권혁순	박해경	김기성	이은정	김명하	오형일	김성한	조영순
김승현	김수진	김영아	김정수	김정주	김정미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김현동	오유경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문금석	박기영	박상규	박시내	배삼순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신정훈
이은미	심해성	김정숙	오미경	오자영	원용일	최현선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예서	이우상	이계월	이우원	옥귀희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훈	이현중	임형욱	장영숙	정두리	정선희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조관행	홍선희	조순덕	조지연	주은경	최양순	한규숙
한상익	정영선	한성건	정지혜	허호범	박성실	홍소형	임이랑	

감사헌금

강순배	강신철	이혜경	김태정	문복순	박경원	박준희	이기분	오민용
우정석	이경준	오진희	이광재	이유선	이은옥	장미경	전인섭	정현숙

무명13

생일감사헌금

곽해자 김지현 이왕준 송상경 홍성식 이우리

녹색꿈헌금

김정주 김정미 김향자 윤미경 윤수진 조항범 오현정 조혜윤 무명1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심	심
	안홍숙	오현정		
	김경혜	홍춘숙		
	박해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이오복		

마음으로 읽는 글

끔찍스럽고 놀라운 것

세종로 퇴계로 을지로 충무로를 지나다니며
세종임금 퇴계선생 을지문덕 충무공...만 길인 줄 알았다가

눈으路
입으路
손으路
발路
귀路코路
내 몸 오대삭신이 다 길이라는 것

사랑으路 미움으路
눈물路 웃음으路
믿음으路 의심으路
길 아닌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

큰길 골목길 잣길 셋길 굽은 길 곧은 길
길 아닌 길... 가리지 않고
서로들 서로에게 길이었다는 것

- 유안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교만을 버리십시오. 어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가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길을 걸어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호흡을 유지하며 진리 편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수요저녁성경연구 / 강의 : 김재홍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하현철 권사	조지연 선생 김훈동 권사

2	영접위원	박홍재 박범희 박석희 박미영 조항미 최은미
	헌금위원	김인걸 백혜숙

믿음으로 읽는 글

애통하라 그리고 비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출2:23-25).

...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애통이다. 우리는 제국 안에서, 예를 들어 대학의 학장실이나 결혼생활, 병원 입원실에서 만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도록 강요당하고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제국이 만사가 잘 풀리고 있다는 허위의식을 제대로 심어 주는 한 진정한 애통과 진지한 비판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만일 출애굽이 역사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인 절규라면 어떻게 생각해 보라. ‘울부짖다 za’ak’라는 동사에는 약간 모호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이 단어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 자기연민의 심정으로 울부짖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법적인 탄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슬퍼하는 사람이 고소인이다. ... 한탄하기보다는 탄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적 모습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체념의 한숨소리를 쏟아낸 것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누군가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고 대답할 수도 없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호소하기를 그만둔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자유와 정의의 삶은 그들이 체제에 맞서서 자유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따르는 모험을 감행할 때 찾아온다.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데서 비판은 시작된다. 애통은 자기연민의 표현일 수도 있고, 탄원인 것은 확실하나 결코 체념은 아니다. 이로써 만사는 약속된 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모습과 거리가 멀고, 또 당연하고도 기대되는 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모습과 거리가 멀고, 또 당연하고도 기대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픔을 공개

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비판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 이러한 비판은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새로운 현실을 연다.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울부짖음을 야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는 힘을 얻게 된다.

... 거듭되는 재앙의 중간쯤에 가서야 이스라엘은 이집트 제국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제국에게 부르짖거나 기대지 않으며, 제국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며, 이 제국이 자기 약속도 지키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얻을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비판이며, 이로써 해체가 시작된다.

이 대목에서 비판은 진전하고 점점 고조된다. 비통해서 울부짖는 사람은 이제 들어주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이를 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도로테 쾰레가 주장했듯이, 예언자적 비판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그들의 깊고 끈질긴 애통을 끌어안도록 만들고, 듣지도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벗어나도록 힘을 부어 주는 일이다. 본래 역사는 말하고 응답하고 부르짖고 반응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국에서는 울부짖음을 들어주는 일도, 말에 대답하는 일도 없기에 역사는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예언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말은 곧 응답을 기대하는 울부짖음을 이끌어내고, 받아 줄 만한 곳에다 울음을 쏟아놓기를 배우며, 또 도대체 귀 기울일 생각조차 없는 딱 막히고 우둔한 제국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출12:30).

...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은 힘이 솟게 해 주는 울음이었지만 이집트의 울부짖음은 도움을 얻지 못해 무너지면서 쏟아내는 울음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역사는 시작되었고, 주도권은 새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넘어갔다. 이집트 제국에게 남은 일은, 무감각한 자기네 시대와 질서의 신들과 불의의 정치가 모두 종말에 이르렀음을 애통하는 일뿐이다. 비판은 그 목표를 성취했다.

- 윌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복있는사람) 중에서